

제주 말(馬)과 관련 민속에 관한 연구

김 동 섭*

요 약

예부터 제주가 광활한 자연 초지(草地)를 갖고 있었기에 말을 사육하기에 적지(適地)가 되었으며, 조선시대에는 여기서 기른 말을 진상(進上)하는 제도가 있었음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증거들이 다양하게 전해오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제주에는 말을 기르고 이용했던 요소들이 생활문화(生活文化)에도 다양하게 전해져 오고 있다.

이들을 말의 역사, 종류, 목마와 진상, 이용, 관련설화 등 5개 부분으로 나누어 살폈다. 역사분야에서는 고려사(高麗史)에 등장하는 삼성신화 속의 망아지, 선사유적에서 발견되는 말뼈, 고문헌에 보이는 기록들, 병풍과 그림 속에 나타나는 말을 살폈으며, 적다, 가라 등 털의 색으로 구분하였던 제주인의 말 구분법을 통해 말의 종류를 이해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헌마공신(獻馬功臣) 김만일과 세습되었던 산마감목관의 교지(教旨), 백중제(伯中祭), 낙인(烙印)을 통해 살필 수 있는 목마(牧馬)의 품습과 공마봉진(貢馬封進)의 장에서 살필 수 있는 진상(進上)에 대해 살폈다. 승마 등 교통에의 이용, 발갈이, 발뺨기 등 농경에의 이용모습을 살폈으며, 가축과 말총을 이용한 민속품들을 살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광정당, 어승생, 말머리 등 말과 관련

* 문학박사,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 고고민속과장

된 지역과 설화 등을 찾아보았으며, 속담과 고사성어에 나오는 말과 관련된 내용들로 살폈다. 그리고 아직도 남아 전해져 오고있는 하마비(下馬碑)를 찾아봄으로써 제주와 말의 관련성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초지(草地)가 좋기로 소문난 제주가 말과 관련된 상당한 문화요소들을 다양한 생활방면에서 안고 있음을 이해하고, 말과 관련 역사와 그 속에 배어있는 민속품들을 연구함으로써 제주라는 지역을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전거가 됨을 보여주는 연구사적 의의를 지니기를 바란다.

박물관은 자료를 통해 관람객과 만나는 곳이다. 이러한 말과 관련된 다양한 문화물들이 다 살아지기 전에 온전하게 조사(調査)되고, 그 조사 결과를 토대로 다양한 자료들을 확보함으로써 말과 관련된 자료를 통해 관람객들을 만나는 전시관이 하루 확보되길 기대한다.

주요 색인어 : 현마공신, 적다, 목마, 공마봉진, 백중제, 낙인, 발뺌기,
어승생, 하마비

1. 서론

넓은 초지를 갖고 있고, 범, 호랑이 등 맹수들이 없어 예부터 말(馬)의 산지(產地)로 널리 알려진 곳이 제주였다. 더군다나 넓은 초원에서 풀을 뜯는 말(馬)의 모습을 ‘고수목마(古藪牧馬)’라 하여 영주십경(瀛州十景)의 하나로 쳤을 뿐만 아니라¹⁾ 오늘날도 쉽게 목격할 수 있는 현상이 이를 증명이라도 하는 것 같다. 그래서인지는 모르지만 “사람은 나면 서울로 보내고, 말(馬)은 나면 제주로 보내라”고 하는 말이 전해오고 있는 지도 모를 일이다.



언제부터 제주에서 말(馬)이 사육 되고 이용되었는가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다. 그러나 “오곡(五穀)의 종자와 함께 송아지와 망아지가 전래 되었다”는 삼성신화(三姓神話)

의 기록을 통해 볼 때 우마(牛馬)의 이용이 상당히 오래 전부터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이 복군 한림읍 월령리 한들굴 등 선사시대(先史時代) 유적에서 말뼈로 보이는 일부 유물이 발견되기도 하였다²⁾. 한편 육지에서도 삼국시대(三國時代)의 유적인 경주 금령총(金鈴塚), 천마총(天馬塚)에서 도제 기마 인물상(陶製騎馬人物像)과 천마도(天馬圖) 등 말(馬)과

1) 영구춘화(瀛丘春花), 사봉낙조(紗峰落照), 성산일출(城山日出), 고수목마(古藪牧馬), 녹담만설(鹿潭晚雪), 정방하폭(正房夏瀑), 굴림추색(橘林秋色), 산방굴사(山房窟寺), 산포조어(山浦釣魚), 열심기암(靈室奇岩)을 들어 제주에서 빼어난 경치 10가지를 지칭하는 영주십경으로 삼았다. 제주도(2005), 『제주관광정보』, 제주도, p.23

2) 이청규(1995), 『제주도고고학연구』, 학연문화사, p.236

관련된 유물이 발견되는 것으로 보아 말(馬)의 이용이 오래 전부터 있어왔음을 알 수 있게 한다.

제주에서 공물(貢物)로 한는 등의 본격적인 말(馬)의 이용은 몽고말을 들여와 목장을 설치하여 기르고 나서부터라고 보인다. 이 보다 앞선 시기의 기록에 “소와 돼지 기르기를 좋아했다”³⁾, “탐라국 왕자 수운나가 아들 고물을 보내 우황(牛黃), 우각(牛角), 우피(牛皮), 나육(螺肉), 비자(櫃子), 해조(海藻), 구갑(龜甲)을 받쳤다”⁴⁾ 등이 있어 소와 돼지는 살필 수 있으나, 말(馬)의 것은 쉽게 찾을 수 없다. 그런 것으로 보아 말의 본격적인 이용은 고려 충렬왕 2년(1276) 원(元)에서 말 160필을 가져다가 수산평(水山坪)에 놓아 먹이면서부터라고 생각된다. 이듬해에는 동쪽과 서쪽에 동서아막(東西阿幕)을 설치하여 목장에서의 말(馬)의 관리에 더욱 힘을 쏟았다⁵⁾. 그러나 이 당시 목장이 해안 평야지대였으므로 백성들의 농작물에 피해가 많았다. 원이 멸망한 뒤에는 이곳에서 기르던 말들은 고려에 귀속되었다가 고려가 멸망한 뒤 조선으로 인계되었다.

조선에서는 말(馬)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마정(馬政)의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특히 세종 11년(1429) 농작물(農作物) 등에 대한 피해를 주고있는 해안(海岸) 마을의 목장을 한라산 위로 옮기게 하고 담을 쌓아 더욱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⁶⁾. 이 때부터 성종 대에 걸쳐 제주도 전체를 한라산을 중심으로 10개로 나누어 소(所)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주읍지『濟州邑誌』(1780~1789)에 의하면 1소장에서 6소장까지는 제주목(濟州牧)에 속한 곳으로 구좌읍에서 한경면에서 이르는 지역에 위치하였다. 7, 8소장은 대정현(大靜縣)에 속한 곳으로 안덕면 중문에 이르는 지역이었다. 9, 10소장은 정의현

3) 김일우(2000), 『高麗時代 耽羅史 研究』, 신서원, p.97

4) 김일우, 앞의 책, p.158

5) 남제주군 성산읍 수산리 현지에서는 '가막자리'라 하여 넓은 목장이 펼쳐보이는 좀 높은 지역을 가리키고 있다. 김동섭(2002), 『제주 말(馬) 이야기』, 제주출판제주문화, p.12

6) 『世宗實錄』, 권45, 세종 11년 8월 경자조의 기록을 김일우, 앞의책, p.164에서 재인용

(旌義縣)에 속한 곳으로 남원읍, 표선면에 이르는 지역이다. 이 당시 10소장에는 7천 5백여 마리의 말(馬)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⁷⁾. 각 소(所)에는 마감(馬監)을 두었으며 이 소(所)를 다시 자둔장(字屯場)으로 나누고 군두(群頭) 1인, 군부(群副) 2인, 목자(牧子) 4인을 두어 관리하도록 하였다. 또 각각의 둔마(鈍馬)에는 천(天), 지(地), 현(玄), 황(黃) ... 등 천자문으로 낙인(烙印)하여 구분 관리하였다.

제주의 말(馬)은 조선시대 세종 년 간인 1446년경에 1만 여 마리에 달해 이어오다가 1861년인 철종 년 간에는 5,000마리로 줄어든다. 그러다가 1940년경에 이르면 약 2만 마리까지 늘어난다. 이때까지만 해도 농사일이나 교통 등에 소와 말(馬)을 많이 이용하였기 때문에 더욱 그랬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교통에 자동차를 이용하게 되고, 조와 보리 등의 식량작물을 재배하던 농경에서 밀감이 보급되고, 돈을 버는 환금작물을 재배하기 시작하면서 재래농경도 근대화의 물결 속으로 들어가면서 변화를 시작하게 된다. 물론 소와 말(馬)의 이용도도 떨어지게 되면서 급격한 수의 감소로 나타난다. 1960년대 제주마의 사육두수는 12,077마리였으나 1970년에는 7,606마리, 그리고 1980년에는 2,414마리로 격감하였고, 1986년에는 1,347마리로 거의 멸종 위기에까지 이르게 된다. 바로 이 해에 천연기념물 제347호로 제주도 재래 마로 지정되면서 보호되기 시작하여 사육두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또한 한국마사회 제주 경마장이 한라산 중산간에 개장되고 말(馬)의 판로가 개척되면서 1998년 말 현재 말(馬)의 수는 5,636마리에 이르게 되었다.

7) 金奉玉(1987), 『제주통사』, 도서출판제주문화, pp.92~96

II. 말(馬)의 종류



1986년 천연기념물 제347호로 지정 보호되는 있는 제주도 제주마는 제주조랑말, 조랑말, 탐라마 등으로도 불린다. 이렇게 길러진 말(馬)은 아주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이들을 털의 색깔로 구분하면서 이용했다. 가

장 많은 색깔의 말(馬)은 제주에서 '적다말'이라고 불리는 울모로 밤색계통의 말인데 전체의 39.5%를 차지한다. '유마'라고 불리는 갈색계통의 말도 30%를 차지하고 있어, 이 두 계통의 말이 전체의 70%정도를 차지하는 편이다. 이 밖에 '총마'라고 불리는 회색계통의 말과 '가라말'이라고 불리는 흑색계통의 말도 이용되었다.

또 암수에 따라 달리 불렀는데, 암말을 '자매'라 불렀으며, 숫말을 '웅매'라 불렀으며, 한쪽 눈이 손상된 말을 '사통이', 발목이 시원치 않은 말을 '족발이', 등이 처진 말을 '활등이'라 하여 구분해 부르기도 했다. 나이에 따라서도 구분했다. 1살의 말을 '금승마', 2살의 말을 '이수매', 3살의 말을 '삼수매', 4살의 말을 '사수매', 5살의 말을 '오수매'라고 불렀다⁸⁾. 말(馬)의 수명은 대개 25년 정도인데, 3세부터 교통수단이나 농사에 이용했다. 태어난 어린 말은 6개월 정도까지 젖을 먹기도 하나 2개월이 지나면 풀과 사료를 먹기 시작한다.

보통 5살 정도 되면 다 자랐다고 하여 성장이 멈춘다고 하는데, 3살짜리

8) 尹京老(2001), 『郷土江汀』, 도서출판디딤돌, pp.156~157

말(馬)의 체격을 살펴보면 암말의 경우 등의 높이가 119cm내외, 가슴둘레는 140cm내외에 이르며, 숫말의 경우는 높이가 125cm내외, 가슴둘레는 143cm내외로 조금 더 큰 편임을 알 수 있다.

III. 목마와 진상

1. 현마공신 김만일(金萬鎰)



현마공신 김만일은 명종 5년(1550)에 제주에서 태어나 인조 10년(1632)까지 살았다고 한다. 무과(武科)에 급제하여 벼슬을 지내다가 선조 15년(1582) 순천부의 방답진 첨절제사를 지낸 후 고향으로 돌아 오게 된다.

이때 말(馬)의 쓰임이 전마(戰馬), 체신(遞信) 등 국가적인 비중이 컸었음으로 목축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껴 목축에 전념하게 되었다고 한다. 마침 임진왜란(壬辰倭亂)과 정유재란으로 상당히 어려운 때인 선조 33년(1600) 전마(戰馬) 500필을 나라에 바치게 되는데, 이 공(功)으로 가선대부(嘉善大夫)의 직(職)에 제수(除授) 된다. 그 후 광해군 12년(1620)에도 500필의 말(馬)을 국가에 바침으로써 김만일은 현마공신이라는 호와 오위도총부 도총관에 제수되며, 인조 6년(1628)에는 종일품인 숭정대부(崇政大夫)에 제수되기에 이른다. 그리고 효종9년(1658) 무렵에는 셋째 아들 대길이 양마

200여 필을 국가에 바침으로써 녹산장, 상장, 침장 일대를 산마목장으로 하여 별도로 감목관을 두도록 하였는데, 초대 산마감목관이 된다. 김대길(金大吉) 감목관 이후 1897년까지 경주 김씨(慶州金氏) 가문에서 산마감목관을 세습하게 된다⁹⁾.

이는 10소장의 경우 감목관을 수령(守令)이 겸한 것과 비교해 볼 때 아주 특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는 목장을 잘 아는 지역주민으로 감목관을 삼음으로써 지역적인 특성을 살려 능률적으로 적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말(馬)의 사육 기술 전수에도 기여하여 양질의 산마(山馬)를 생산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산마(山馬)는 품질이 우수하여 궁정용이나 어승마(御乘馬)로 활용하였으며, 역세고 기운이 왕성해 전마(戰馬)에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기도 하였다¹⁰⁾. 국왕은 매 3년마다 바치는 제주도의 공마(貢馬)는 산마(山馬)에 한해서 200필을 바치게 했다고도 한다.

2. 목마(牧馬)



기업축산이나, 목장을 별도로 갖지 않은 제주도 민들이 말(馬)을 키우는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었다. 그냥 한라산 위에 올려놓고 가끔씩 물통이 있는 곳으로 올라가서 확인하는 차원의 그냥 기르는

방법과 공동목장에 올려 기르는 방법, 그리고 농경에 이용하거나 마차 등에

9) 金奉玉(1987), 『濟州先賢誌』, 濟州道, p.19

10) 南都泳(2001), 『濟州島牧場史』, 한국마사회마사박물관, p.179

활용하는 말(馬)은 집에서 길렀다. 80%이상이 처음의 방법을 택했지만 일제시대 때 공출(供出)이 있으면서부터 이 방법도 바뀌기 시작했다.

농경(農耕), 승용(乘用), 운반(運搬) 또는 식용(食用)으로 이용했을 뿐만



아니라 수출 증목에까지 포함되었던 말(馬)이 있었지만 특별한 배려 전문적인 관리를 받는 것 없이 길러졌다. 겨우 구충(驅蟲)을 위해 음력 11월경에 들불을 놓는 정도였으며, 정초에 있었던 마을제에서 번성(繁盛)을 기원하고, 음력 7월의 백중제 때에 우마를 돌본다고 믿는 신에게 마소의 증식(增殖)을 기원하는 백중제를 올리는 정도였다. 그리고 또 하나의 배려라면 오일(午日)에는 말(馬)을 매매하지 않았다는 속신(俗信)이 전해오는 것 정도이다. 혹은 이 날 말(馬)을 매매(賣買)하면 축일(丑日)에

소를 매매하면 그러한 것과 같이 기르던 말(馬)이 병에 걸릴까 염려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제주에서의 목축(牧畜)은 많지는 않지만 말(馬)들이 먹을 수 있는 '물통'이 있는 초지(草地)에 그냥 올려놓는 것으로 시작된다. 그러면 내와 오름이 경계가 되어 말(馬)들은 멀리 가지 않으면서 그 곳에 적응하면서 살게 된다. 단지 한 달에 몇 번씩 '물통'이 있는 곳을 찾아가 물을 먹으로 오는 말(馬)을 확인하는 것이 고작이었다. 이때 소유를 확인하기 위해 찍어두었던 문양이나 글자 등을 확인하면 된다. 낙인의 문양은 마을의 단위가 되었으며, 집안마다 독자적인 것을 갖는 경우도 있었다. 잃어버린 말(馬)은 농한기인 겨울철에 찾아 다녔다. 또 마을 내 일정한 곳에 가두어 두었던 말(馬)은 풀이 돌아날 무렵에 올려 키우다가 다시 목초(牧草)가 역세어져 먹을 수 없게 되었을 때 집으로 내려 키우기도 했다. 우마(牛馬)가 주로 먹는 목초로는 '참새완두', '개자리', '참새피', '방동사니' 등이었다.



보통 4월경에 올려 10월경에 내리므로 6개월 정도 초지인 목장(牧場)에서 키웠던 셈이다. 이때 몇 가옥이 함께 올려 교대로 망을 보거나, 일정한 분에게 의뢰하였는데 이렇게 전문적으로 말(馬)을 관리했던 사람은 목자(테우리)라 했다.

다. 이들에게는 각자가 1930년대 기준으로 봄, 가을에 보리 5되 혹은 1년에 120원 정도씩을 주었다고 한다. 목자(牧者)들은 '겹바지'에 '겹저고리'를 입고 '정당벌립'을 썼다. 그리고 '동고랑'을 담은 '약도리'를 메고 긴 막대를 갖고 다녔는데 이것이 목자들의 기본 복장이었다. 그리고 이들은 말털에 붙은 기생충을 제거하거나 털을 빗기는데 쓰기 위해 '글쟁이'와 입으로 약을 먹일 때 썼던 '대통' 혹은 '약질이'라는 것을 갖추어 사용했다.

남군 남원읍 한남리의 경우 백중제는 음력 7월 14일 밤이면 오늘날에도 지내고 있다. 지금은 예전처럼 동산에서나, 목장에서도 하지 않고 한남리 운



동장에서 제를 올리는 것이 다를 뿐이다. 개인별로 닭 한 마리를 잡고, 떡한

가지(뽕 한가지), 과일을 제물로 준비해서 지낸다. 2000년의 경우 목축(牧畜)을 업으로 하는 사람이 4가옥에 지나지 않지만 말(馬)을 하지 않는 분들도 백중제를 지낸다. 왜냐하면 농사를 하면 바로 목축을 하는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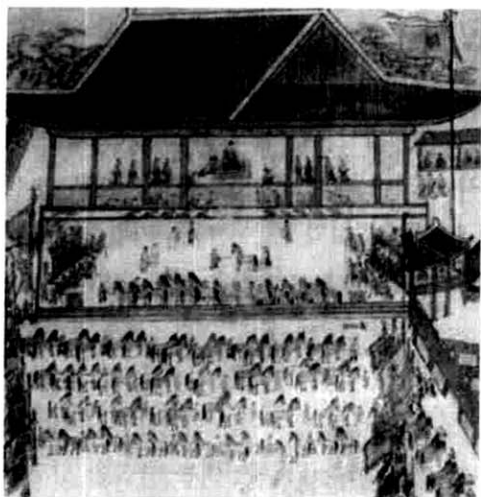
7월 14일 밤 집에서는 9시정도 나가서 11시 반까지 제를 올릴 들판의 한 쪽에서 시간을 보낸다. 늦은 밤이었으나 춥지 않은 여름철이었으므로 이 때 여러 가지 일을 의논하거나, 옛날 이야기를 나누는 등 가볍게 보내는 시간이었다고 한다. 자정이 가까워지면 새나 자리를 깔고 북쪽을 향해 진설한 후 술잔을 올린다. 그리고 절도 안하고 진설만 해 둔 다음 가만히 10분 정도 두었다가 '향불(코생이)'을 피워 올린다. 올린 술잔은 입에 넣었다가 진설한 반대 방향으로 품어준다. 예전에는 운동장에 불을 피웠으므로 숯불을 편평한 돌 위에 놓고 향을 피웠다. 제물로 가져간 것을 거기서 거의 다 먹고 내려온다. 애들도 데려갔으므로 서로 자기를 닭도 먹어봐라, 떡도 먹어봐라 하면서 나누어 먹었다. 요사이는 그렇지 않지만 예전에는 축산을 담당하였던 행정기관이었던 읍에서도 직원들이 놀러왔으므로 "한 다리 먹어봐라" 하면서 나누어 먹으므로 음복하는 시간이 상당히 걸렸다고 한다. 전기 불같은 것은 없었으나 장작을 준비해 가서 불을 피웠으므로 그렇게 어둡지는 않았다. 지금은 10여 명밖에 지내지 않는다¹¹⁾.

목자(牧者)들이 사용하였던 도구들을 박물관 자료에서 살펴보면 낙인의 경우 길이 89.2cm로 송자가 새겨진 것과 길이 91.7cm로 '山'자가 찍히도록 만들어져 있는 것이 이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글쟁이의 경우 큰 것은 손잡이 길이 34cm, 구경 11.5cm, 폭 1.5cm이며, 작은 것은 손잡이 길이 21cm, 구경 7cm, 폭 2.5cm 정도의 것이 쓰였다.

11) 김동섭(2001), 『한남민속』, 『감귤가공공장건설예정지부내문화재지표조사보고서』,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 p.23

3. 진상(進上)

조선시대에 말(馬)은 국방, 교통통신, 운반, 농업, 종자마 등으로 다양하



게 쓰였다. 이를 위해 제주 말(馬)이 공물로 바쳐졌다. 공마(貢馬)는 연례적으로 보내는 세공마(歲貢馬)와 삼명일에 보내는 삼명일 진상마, 3년마다 식년 공마, 그리고 체임마, 헌마, 교역마 등으로 이루어졌다. 주로 4~6세의 길들여진 숙마(熟馬)를 공마(貢馬)로 활용하였는데, 세종 13년(1431)의 경우 세공마가

300필에 이르기기도 하였다고 한다.

이를 자세하게 살필 수 있는 자료가 탐라순력도(耽羅巡歷圖)이다. 탐라순력도는 이형상¹²⁾ 목사가 관내를 순력(巡歷)하면서 자연, 역사, 산물, 풍속 등을 자세히 기록한 화첩이다. 그림은 화공(畵工) 김남길로 하여금 그리게

12) 이형상은 제주도는 물론 청주, 동래, 경주 등 몇몇 고을에서 수령을 지냈던 관리였다. 유교의 이념철학을 실천한 청백리로 항상 독서와 연구에 정진하여 60여종, 200여권의 방대한 저작을 남기기도 했다. 우리 제주에서는 절 오백, 당 오백을 없앴 영천 이 목사로 널리 알려져있다. 이형상이 제주목사로 제수된 것은 숙종 27년(1701) 11월이었다. 그러나 도입한 것은 그 나이 50이 되던 해인 이듬해 3월이었으며 30개월의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그로부터 1년 3개월이 지난 다음해 6월에 파직되어 제주를 떠났다. 파직 사유는 당시 대정현에 유배 온 유배인을 두둔했다는 탄핵을 받았기 때문이었다. 짧은 재임기간이었지만 유학을 진흥시키고, 무속인들을 귀농 시켰으며, 남장을 금지시키는 등 풍속을 정화시키는데 주력했다. 뿐만 아니라 현마공신 김만일의 가문에서 세습하던 감목관의 폐해를 들어 이를 폐지하기도 하였다. 金榮治(2002), 『濟州史人名寺典』, 濟州文化院, pp.587~590

했고, 글씨는 오씨에게 쓰도록 했는데, 41쪽의 채색 그림을 포함해 총 43면으로 이루어졌다¹³⁾. 18세기 초 제주의 여러 모습을 담고 있는 이 화첩은 지난 1979년에 보무 제652-6호로 지정되어 보호되고 있다.

특히 공마(貢馬)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을 살필 수 있는 부분은 공마봉진(貢馬封進)에서 찾아볼 수 있다. 1702년 6월 7일에 실시한 것으로 진상(進上)에 필요한 말(馬)을 제주 목사가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을 그린 그림이다. 당시 공마(貢馬)의 책임은 제주 목사에게 있었다. 이 그림에서는 대정현감 최종제를 차사원으로 임명한 사실과 다양한 진상마의 내력과 수량을 기록하고 있다.

임금이 타는 말(馬)인 어승마(御乘馬) 20필, 해마다 정기적으로 공납하는 연례마(年例馬) 80필, 별도의 용도로 쓰기 위한 차비(差備)마(馬) 80필, 임금의 생일을 축하해 바치는 탄일마(誕日馬) 20필, 동짓달에 중국에 보내는 동지마(冬至馬) 20필, 정월 초하루에 올리는 정조마 20필 등이다. 이 밖에도 연말에 각 목장에서 바치는 歲貢馬 200필, 흉년이 있을 때 사역을 위한 흉규마 32필, 짐을 싣는데 활용하는 노태마 33필 등 말(馬) 433필과 흑우 20수가 진상의 대상이었음을 알 수 있다¹⁴⁾. 이 밖에도 산장구마, 우도점마, 조천조점, 별방조점, 정의조점, 서귀조점, 대정조점 등에서 마필 수가 6,000을 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공마(貢馬)의 수송은 봄부터 여름에 걸쳐 이루어진다. 제주에서 서울까지 약 2개월이 소요되므로 해상 조난과 수송 비용이 막대하였는데 공마선 3척에 양곡 1천석, 인원은 작게는 41명에서 많게는 50명이 담당하였다고 한다¹⁵⁾.

13) 오상학(2000), 「탐라순력도의 지도학적 가치와 의의」, 『耽羅巡歷圖研究論叢』, 濟州市, pp.25~37

14) 박찬식(2000), 「탐라순력도에 보이는 제주 진상의 실태」, 『탐라순력도연구논총』, 제주시, pp.98~116

15) 金奉玉, 앞의 책, pp.94~95

IV. 제주 말(馬)과 관련 이용 자료



살아 있을 때 말은
센 힘과 빠른 발걸음
이라는 말(馬)이 지
닌 특징을 우리 인간
들이 활용하여 왔음
을 살폈다. 전마로서
국방에의 이용은 물
론, 안장을 활용해

교통통신에 이용했으며, 쟁기를 활용해 밭갈이에 이용하는 등 다양하게 쓰
였음을 보았다. 이렇게 말(馬)은 살아 있을 때 센 힘과 빠른 발을 다양하게
사용한 것처럼 죽어서 남긴 가죽도 다양하게 이용되었다. 물론 말(馬)이 남
겨준 말총도 탕건, 망건, 갓을 만드는 데 긴요한 재료로 쓰이고 있다.

1. 교통·농경에의 이용

조선시대 말(馬)이 국방에의 이용은 물론, 교통통신, 운반, 농업, 종자마
등으로 다양하게 이용되었다. 이밖에도 오늘날에는 레저스포츠의 하나로 승
마, 경마에 이용할 뿐만 아니라, 문화 행사가 열리는 곳에서는 투마도 볼 수
있게 됐다. 이렇게 마을 목적하는 바에 알맞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말을 타
는 사람의 투구와 갑옷은 물론, 말을 위한 보호장치도 사용했다. 순한 가축
중의 하나였지만, 겁이 많았던 말은 기본적으로 머리에 굴레를 씌우고, 입에
는 재갈을 물렸으며 발에는 편자를 대어 이용했다. 여기에 더하여 타고 다
니기 위해서는 안장, 등자, 다래가 필요했다. 신분이나 경제력에 따라 다양



한 재료로 만들어진 안장이 이용됐으며, 등자도 문양을 새긴 것에서부터 단순하게 발만 없어 놓을 수 있도록 만든 것 등 다양한 것이 이용되었다. 다래도 다양했

는데 단순하게 가죽을 둥글게 잘라 달아맨 것에서부터 신라시대의 것으로 경주에서 출토된 천마도는 바로 이 다래 위에 그려진 것이다. 이밖에도 폭정을 저지른 관리를 호령하는 어사의 목소리가 저 멀리서 들려오는 듯 전해져 오고 있는 마패를 통해서도 말이 교통수단으로 이용됐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마패는 나라의 관리들이 공부로 지방에 나갈 때 역마를 징발하는 증표로 쓰던 것으로 지름 10cm내외의 것이 사용되었다. 한쪽 면에는 발행처와 자호 및 연월일을 새기고 다른 한쪽 면에는 말을 새긴 것이다.



말을 농경에 이용하는 경우는 발갈이와 발볼리기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우선 말을 발갈이에 이용하기 위해서는 말의 목에 접계를 채우고 접계에 붙은 구살에 솜비줄을 연결하면

끝의 오리목에 쟁기의 돌뺨이불을 연결해 말의 축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말로 발갈이를 하는 경우는 드물었으나 자갈이 별로 없는 무른 땅을 빨리 갈고자 할 때 주로 이용했다. 소를 발갈이를 할 때 보다 빨리 많은 밭을

갈 수 있었다.

밭볼리기는 보리 수확을 마친 다음 가을 작물로 가꾸는 조나 산뽕을 파종할 때 이루어지는 파종법을 말한다. 밭갈이를 하고 나서 씨를 뿌린 다음 밭을 단단하게 말의 발로 밟아주는 것을 말한다. 이는 화산회토로 이루어져 쉽게 바람에 날려 버릴 수 있는 흙을 다져줌으로서 바람에 쉽게 쓸려 가는 것을 막고, 비에 쉽게 쓸려 가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밭아를 도와주는 제주 고유의 파종방법인 것이다. 말을 구하지 못할 때는 말발굽 모양으로 만든 남태를 이용하거나 작은 말은 사람이 직접 밟아주기도 하였다. 마차를 끌 때도 이용되었는데 이 때는 목에 접계를 채우고 등에 구리를 얹은 다음 구라 쇠에 마차의 채경 고리를 걸어야만 이용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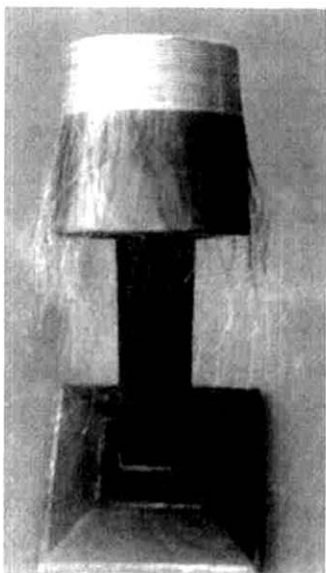
2. 가죽 · 말총의 이용



가죽을 재료로 이용한 민속품으로는 우선 장구와 북 등 악기를 들 수 있으며 가죽버선과 미투리, 목화 등의 신발류, 또 각띠, 서류가방, 문서가방 등 질기고 오래 사용하여할 민속품에 주로 이용하였다. 장구는 가운데가 잘록한 나무통의 양쪽에 원형의 가죽 판을 매워 만든 악기로 장구통의 길이가 56cm판의 지름이 43cm정도의 것이 이용되었다. 북은 둥근 나무통을 중심으로 양쪽에 가죽으로 만든 판을 매워 만든 악기로 폭이

34cm, 판의 지름이 33cm정도의 것이 사용되었다.

생활 속에서 활용하였던 것으로 가죽버선을 들 수 있다. 가죽버선은 눈이



많이 와서 그 위를 다닐 때 미투리나 짚신 속에 신었던 버선을 말한다. 발길이 2cm, 폭이 20cm 정도의 것이 이용되었다. 미투리는 짚을 재료로 만든 짚신과 같은 형태의 것으로 가죽을 잘게 오려 만든 가죽신이다. 발의 길이가 30cm, 폭 8cm 정도의 것이 이용되었다. 목화(木靴)는 혼례 때 신랑이 혼례복과 함께 갖추어 신었던 것으로 검은 색의 것이 이용되었다. 형견으로 만든 것도 쓰였으나 가죽의 것도 함께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발길이 28cm, 목길이 24cm의 것이 쓰였다. 강정지역에

서는 겨울철 마을로 내려온 말을 다음해 4월경에 목장으로 다시 올리는데 이 때 재료로 사용할 말총을 자르고, 낙인(烙印)을 찍었다.

말총을 재료로 이용하는 민속품으로는 구덕을 등에 질 때 사용하는 배, 참바나, 망건, 탕건을 들 수 있으며, 또 갓의 모자 부분인 총모자를 만드는데도 사용하였다. 망건은 상투를 튼 사람이 머리카락을 걸어 올려 흘러내리지 않도록 머리에 두르는 것으로 그물같이 생긴 것이다. 보통 폭이 8cm, 길이 50cm 정도의 것이 쓰였다. 보통 말총으로 만들었으나 인모(人毛)를 재료로 사용하기도 한다. 망건을 만들 때는 망건골을 이용하였고, 보관할 때는 원통형의 망건집을 이용하였다. 탕건은 남자들이 갓 아래 받쳐 쓰던 관의 하나로 말총을 잘게 세워서 앞쪽은 낮고 뒤쪽은 높게 턱이 지도록 만들었다. 보통 직경 14cm, 높이 17cm 정도의 것이 쓰였다. 집안에서는 갓을 벗고 망건 위에 탕건만을 쓰고 생활하였다. 우리의 탕건이 보통 말총으로 만든 것과는 달리 중국에서는 비단을 재료로 했다고도 한다. 탕건을 만들 때는 탕건골을 이용하였고, 보관할 때는 탕건집을 이용했다.

V. 말 관련 설화

1. 설화(說話)

안덕 덕수(德修)에서 나와 화순(和順)으로 가는 킨 길로 들어서서 1km정도 가면 산방산 밑으로 야트막한 동산이 소나무를 얹고 자리하고 있다. 특별한 것이 보이거나 별난 것이 보이는 것도 아니지만 이 곳이 광정당(廣靜堂)이 있던 곳으로 예로부터 신령(神靈)이 세기로 유명한 곳이었다. 그러기에 이 당(堂) 앞을 지나갈 때면 누구나 반드시 말에서 내려 걸어가야 한다고 한다. 만일 말에서 내리지 않고 그대로 지나가게 되면 말(馬)의 발에 이상이 생겨서 말이 죽게 된다고 전했던 곳이다.



조선조 숙종 때에 <영천 이(李) 목사(牧使)>가 제주 목사로 부임해 와서 이 당(堂) 앞을 지나가게 되었다. 이 당(堂) 앞에 목사의 행차가 다다르자 군졸들이 말했다.

“이 당은 신령이 세워서 말을 탄 채로 지나갈 수가 없으니, 황송하오나 하마(下馬)하시어 걸어가십시오”라고 권고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李) 목사는 이 권고를 듣지 않고 그대로 지나가려 했다. 그랬더니 갑자기 목사가 타고 있던 말이 발을 절기 시작하여 그 자리에 쓰러지는 것이었다. 이 목사는 곧 이 당의 메인심방을 불러들였다.

“이 당의 신령이 사실 세냐?” “예 그런 줄로 아옵니다.”

누구의 영(令)이라 심방은 벌벌 떨며 말(馬)을 잡아 큰곳을 시작했다. 곳이 한참 진행되어 가니, 당(堂)에서는 큰 뱀이 나와 꿈틀거리며 혀를 날름거렸다.

“이게 무슨 신령이란 말이나?” 영천 이 목사는 곧 군줄을 시켜 불을 질러 그 뱀을 죽였다. 그 때 뱀은 3마리의 장평으로 변해 도영남밖으로, 인성으로, 사계로 날아가 그 곳의 당신이 되었는데 지금도 그 당(堂)들이 남아 있다고 한다.

이런 일이 있고 나서 영천 이 목사는 목사직을 다 마치지 못하고 돌아가게 되었다. 그 때 영천 이 목사를 수행하고 있는 정의골 출신의 수행원의 꿈에 “이목사가 돌아가도록 예정했던 시기에 돌아가게 되면 큰 번고가 있을 것이므로 예정 시기보다 일찍 가는 것이 좋겠다”고 하므로 심상치 않은 일이라 여기고 영천 이목사도 그렇게 했다. 무사히 바다를 건너 바다에서의 번고를 무사히 넘긴 영천 이 목사는 한숨을 돌렸지만, 집에 돌아와 보니 집안에 번고가 생겼다고 한다.

일제 시대 때 신작로를 내면서 옛길은 조금 변형시켰으며 그 때 죽은 말을 묻어 주었던 말 무덤의 자리는 작은 공원으로 바뀌어 벤치가 놓여있다. 일제 때에 그 위로 신작로를 내려고 파헤치자 말의 뼈가 무수하게 많이 나왔다고 한다¹⁶⁾.



이 밖에도 말과 관련된 지명으로 <어승생>과 <말머리>를 들 수 있다.

어승생은 ‘어승생악’, ‘어승생오름’이라고도 불리는 곳으로 제주시 노형동

16) 2001. 12. 27 덕수리 허기현(男, 1932년생)님의 제보에 의한 것이다.

해안 남쪽 한밤 저수지 뒤에 솟은 산을 말한다. 높이는 1.169m정도이다. 제주도 오름 중 가장 큰산으로 정조(正祖) 21년(1797) 산밑에서 용마(龍馬)가 태어나 조정에 바치자 어승마(御乘馬)로서 노정(盧正)이라는 이름을 내리고 가자(加資)하였다고 한다.

‘말머리’라는 곳은 제주시 용담동 다끄내 곁 바닷가에 있는데 <배 큰 정서방>과 관련된 전설이 전해오는 곳이다. 배 큰 정 서방은 다끄내 사람인 데 배가 몹시 커 한 섬 쌀밥과 돼지 한 마리를 먹어야 겨우 배가 부를 정도였으며, 힘이 몹시 센 장사였다. 부모는 도저히 먹여 살릴 수 없어 관아에 보고하여 살려주도록 요청했으나 관아에서는 너무 힘이 센 사람임으로 나라에 해가 될 것으로 판단해 죽이도록 결정했다. 이 <배 큰 정 서방>이 바다에 빠져죽고 그 자리에 백마(白馬)가 나타나 주인을 찾으며 하늘을 향해 세 번 울고 사라졌던 곳이 말머리다¹⁷⁾. 마을 사람들은 <배 큰 정 서방>이 죽지 않았다면 그 백마를 타고 큰 장수가 되었을 것이라 믿고 있다.

2. 속담과 성어

말과 관련된 속담¹⁸⁾, 고사성어가 다양하게 쓰여왔다.

쇠고기에 비해 말고기는 소화가 잘 되고 오래 먹어도 물리지 않아 많이 먹을 수 있었기에 끼니를 대신할 수 있었던 만큼 좋은 고기라는 뜻으로 쓰는 ‘말케기론 때 살아도 쉼케기론 때 못 산다.’는 속담이 전해온다. 또 말이 지닌 성질을 환기시켜 주의하는 뜻으로 ‘말석은 모땀 안 감나’는 속담도 전해온다. 왜냐하면 말은 잘 놀리는 동물이라서 혹 말석을 몸에 감았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음을 경계하고 있다. 또 일가친척을 제대로 대하지 않는 사람

17) 현용준(1973), 『제주도전설』, 서문당, p. 178

18) 고재환(2001), 『濟州島俗談辭典』, 제주도, pp.178~179

을 경계할 때 쓰는 '말도 칠팔춘을 가린다'라는 속담도 전해온다. 이는 하잘 것 없는 동물에 지나지 않는 말이 근친간에 교미하지 않는 것을 들어 적어도 사람이라면 근친을 알아보는 기본적인 인륜을 지켜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일상에서 사용하는 것에는 말과 관련된 고사성어도 많다¹⁹⁾. 마이동풍(馬耳東風), 천고마비(天高馬肥), 죽마지우(竹馬之友) 등 쉽게 쓰이는 것은 물론 마혁과시(馬革裹屍), 부마(駙馬), 지록위마(指鹿爲馬) 등도 찾아볼 수 있다. 말의 귀에 스치는 동풍(東風)이란 뜻인 마이동풍(馬耳東風)은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충고에 대해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을 가리킨다. 하늘은 높고 말은 살찐다는 뜻의 천고마비(天高馬肥)는 변방으로 떠나는 친구에게 적의 침입에 경계하라는 뜻에서 나온 말이었지만 지금은 가을이 좋은 계절임을 말할 때 쓴다. 대나무로 만든 말을 타고 함께 놀던 친구라는 뜻의 죽마지우(竹馬之友)는 어릴 때부터 친하게 지내왔던 벗을 일컬을 때 쓴다. 말 가죽으로 시체를 싣는다는 뜻의 마혁과시(馬革裹屍)는 전쟁터에 나가 싸우다

죽겠다는 용맹한 장수의 각오를 가리키는 말로, 예비로 준비하는 말이라는 뜻의 부마(駙馬)는 공주의 남편을 부마도위(駙馬都尉)라는 관직에 임명하면서부터 황제(皇帝)의 사위를 가리키는 말로, 사슴을 보고 말이라고 우긴다는 뜻의 지록위마(指鹿爲馬)는 위압으로 남을 짓눌러 바보로 만드는 것을 가리키는데 쓰는 말이다.

이 밖에도 말과 관련된 유물로 우리 제주에 전해오는 두 개의 하마비(下馬碑)가 있다. 이곳에 이르러서는 반드시



19) 한국고전신서판찬회(1990), 『동양고사성어』, 홍신문화사, pp. 108~109

시 말에서 내려야 한다는 표시인 것이다. 하나는 제주목 관아 입구 앞에 세워진 것으로 '守令以下皆下馬'라고 음각된 것이고, 또 하나는 제주향교 앞에 세워진 것으로 '大小人下馬碑'라고 새겨진 것이다.

VI. 맺는 말

제주 말(馬)과 이와 관련된 민속자료에 대해 살폈다. 물론 본고에서 살핀 것이 전부는 아닐 것이다. 오랜 역사 속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선조들과 함께 해 온 말문화가 아직껏 제 모습으로 자리잡지 못하고 있다. 말(馬)과 관련된 역사적 인물, 목장 등의 유적, 몇몇 민속품을 다루면서 우리 제주에 말(馬)과 관련된 생활문화가 다양하게 남아있음을 확인하는 기회가 된 것이다. 말(馬)과 관련된 오랜 역사를 갖고 있고, 목장을 갖고 있으며, 말(馬)을 키웠던 사람들과 말(馬)을 키우면서 사용했던 도구들이 있었다. 그리고 말(馬)의 가죽, 말총을 이용한 민속품들과 말(馬)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우리 제주에 고스란히 남아 전해져 오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들 민속에 대한 개략적인 소개에 그치고 말았다. 말을 기르고 이용했던 민속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 연구와 관련 민속품들에 대한 다른 지역 것과의 비교 연구는 다음 기회로 미룬다.

오랜 시간 우리 선조들의 삶 가까이에서 어렵고 힘든 일들을 함께 나누며 생활했던 말(馬)에 대한 보다 많은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는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말(馬)에 대한 보다 깊은 애정을 가짐으로써 말(馬)의 고장 제주를 사랑하는 계기가 되는데 작게나마 기여했으면 한다.

〈참고 문헌〉

- 강민수(1999), 『제주 말(馬) 연구』, 제주: 도서출판열림문화
- 강민수(1999), 『제주 조랑말』, 제주: 제주대학교출판부
- 고재환(2001), 『濟州島俗談辭典』, 제주: 제주도
- 金東燮(2004), 『제주도 전래 농기구』, 서울: 민속원
- 金奉玉(1986), 『濟州先賢誌』, 제주: 濟州道
- 김동섭(2001), 『제주 말(馬) 이야기』, 제주: 도서출판제주문화
- 김동섭(1998), 『濟州道の 農機具』, 제주: 濟州道民俗自然史博物館
- 김동섭 외(2005), 『대정지구택지개발공사문화재지표조사보고서』, 제주: 濟州道民俗自然史博物館
- 김동섭 외(2001), 『감귤가공복합공장건설예정지문화재지표조사보고서』, 제주: 제주
도민속자연사박물관
- 김봉옥(1987), 『제주통사』, 제주: 도서출판제주문화
- 김일우(2000), 『高麗時代 耽羅史 研究』, 서울: 신서원
- 南都泳(2001), 『濟州島牧場史』, 서울: 한국마사회마사박물관
- 南都泳(1999), 『韓國馬政史』, 서울: 한국마사회마사박물관
- 오상학 외(2000), 『耽羅巡曆圖研究論叢』, 제주: 濟州市
- 尹京老(2001), 『郷土江汀』, 제주: 도서출판디딤돌
- 이청규(1995), 『제주도고고학연구』, 서울: 학연문화사
- 임동권 외(1999), 『한국 馬 민속』, 서울: 집문당
- 장덕지 외(2000), 『馬의 理解』, 제주: 도서출판늘
- 제주도(2005), 『2005주요행정총람』, 제주: 제주도정책개발담당관실
- 현용준(1973), 『제주도전설』, 서울: 서문당

2005년 10월 30일 접수

2005년 12월 10일 최종 수정본 접수

3인 익명심사필

A study of the Jeju's Horse & the related Materials

Kim, Dong-Seop*

〈Abstracts〉

From the old time, Jeju island was famous a great grassland. In Chosun dynasty, Jeju's Horse was supported to the nation for a regional taxes. So there were lots of horse related materials in Jeju's island.

This article is dealing with a horse's history, a kind, rising & support, using, related literature. In horse's history section, I analyzed a old recording paper(Goryusa), a old horse's bones and old horse's paintings. In a kind section, I analyzed horse hair colors(jeokda, kala). In a rising & support section, I researched a Chosun dynasty's officer, Kim Man-il, analyzed rising related materials and supporting customs. In a using section, I analyzed horse riding, farm's usage, horse hair crafts and horse skin crafts. In a related literature section, I analyzed oral literature, proverb etc. I hope to understand a Jeju horse's related culture from this article. Also, I want to understand a region Jeju island.

A museum is the place to acquire materials, research the materials and exhibit the materials in need. Therefore, a museum could be classified according to the characters of materials. But the basic role of a museum is providing a place to meet visitors with materials. Finally, I hope to build the Jeju horse's museum.

Key words : horse's history, kind, rising, supporting, craft, oral literature

* Doctor of folklore, Jeju Folklore & Natural history Museum